



A Fable of Tomorrow's Library

훗날의 圖書館 一寓話

J.D. 마아샬 지음
石仁澄 옮김

[譯者註]: 이 글은 John David Marshall, *A Fable of Tomorrow's Library* (Berkeley, California: Peacock, 1965)를 옮긴 것이다. 이 책은 本文 3 page 4 paragraph 짜리로 超미니 型 단행본인 셈인데, 과학 기술 문명 시대의 인간 생활의 모습을 도서관 종사자의 입장에서 풍자한 것이다.

저인이 J.D. Marshall은 Middle Tennessee State University의 前 도서관장이었으며, 지금은 University Bibliographer로 있다. 그는 다음과 같은 많은 저서 및 편저를 가지고 있다. 즉, *Books in Life; Louis Shores: A Bibliography, Books, Libraries, Librarians; Of, by, and for Librarians; An American Library History Reader; In Pursuit of Library History: Approach to Library History; The Library in the University; Mark Hopkins, Log and Other Essays by Louis Shores* 등이다.

오늘날 도서관 司書는 바야흐로 ‘마이크로 필름의 黃金時代’라 일컬을 수 있는 시대를 즐기든가 또는 견디 내든가 (물론 견해에 따라 달리 느껴질 일이지만), 하면서 살아갈 형편에 있다. 이래로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, 우리가 이미 이 마이크로 필름 시대의 중반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라면, 정녕 그 초반에 처해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. 이러한 과학 기술 시대의 도서관 생활이 다행일지 불행일지 모르지만 (이 또한 견해에 따라 달리 느껴질 일이지만), 조만간 도서관 司書가 도서관에서 베풀어야 할 서어비스는 새로운 세 가지가 될 것이다. 적절한 때에 적절한 책을 적절한 독자에게 제공한다는 현재의 구호로는 이미 충분치 못할 것이다.

1984년 型 도서관의 도서관 司書도 역시 도서관이라 불리는 건물에서 그 전문직을 수행할테지만, 그러나 그 건물은 옛날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다. 도서관의 장서는 모두 마이크로 필름本으로 바뀌어져서, 책 대신에, 도서관 서가는 수많은 작은 마이크로 필름 상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. 독서실은 여전히 클 것이고 —아마도 전보다도 더 클지도 모르겠고— 거기엔 수많은 작은 책상들로 들어 찰 것이며, 이들 책상 위에 모두 마이크로 필름 영사기라는 독서 장치가 설치

될 것이다.

모든 장서가 마이크로 필름本으로 되었으니, 고객에게 베풀 도서관 司書의 서어비스도 새로운 세 가지가 될 것은 뻔한 이치다. 도서관의 고객이 —그의 이름을 John Q. Reader라고 해 두자— 마이크로 필름本으로 장서된 도서관에 들어서면, 이 讀者氏(Mr. Reader)는 첫째의 서어비스를 받게 되는데, 눈을 검사하여 알맞은 안경 돛수를 처방해 줄 안과 의사실에 들리게 된다. 다음에 讀者氏는 두번째 서어비스를 받게 되는데, 안경실에 들어서 그 처방에 맞는 안경을 찾는 다. 안경실에는 온갖 돛수의 안경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맞는 안경을 찾는 데는 잠깐이면 족할 것이다. 알맞은 안경을 끼었으니, 讀者氏는 이제 마이크로 필름 영사기에 대고 독서를 할 준비가 다 된 셈이다.

도서관에서 제공한 새 안경과 영사기의 도움을 독서를 마친 讀者氏는 도서관의 세 번째 서어비스를 받으러 ‘도서관 導育犬舍 관리소(The Office of the Library's Seeing-Eye Dog Kennel)’에 나타난다. 거기서 그는 집까지 인도할 한 마리 導育犬을 서비스받게 되리라.

